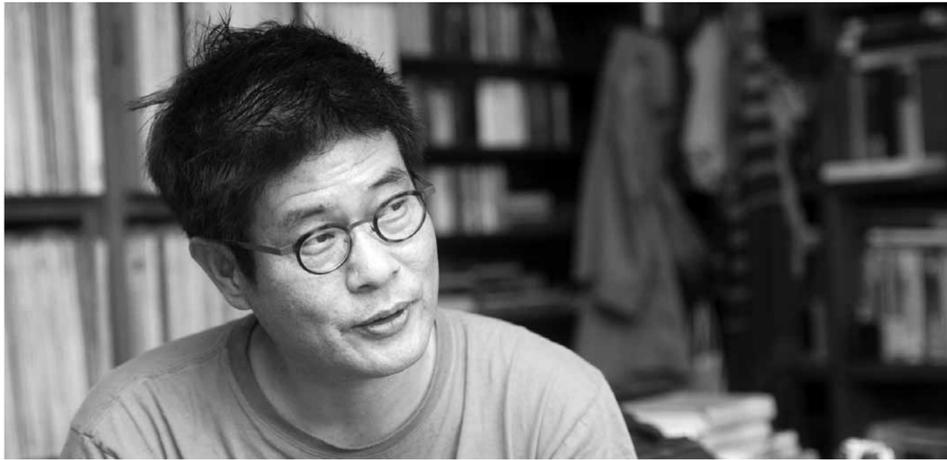


치유에 '변화구'는 없다... 거침 없는 '돌직구'

컬쳐 & 피플

철학자 강신주



빛바랜 반소매 라운드 셔츠. '거리의 철학자' 강신주(47)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광화문에 있는 집필실에서 그는 글을 쓰고 있었다.

첫인상으로는 무골(武骨)이데, 그는 철학자다. 그가 쓴 깔끔하고 정치한 문장의 책을 읽은 사람이라면 이쯤에서 그를 다시 한번 보게 될 거다. 강씨는 인문출판계에서 '대세'다. 시인 김수영을 다룬 '김수영을 위하여', '강신주의 다 상담' 시리즈, '강신주의 감성수업'까지 대부분 화제작이 됐다. 그는 '인문정신으로 고통을 치유하는' 지식인이다. 그의 철학을 간주리자면 각자 자신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게 자유이자 인문학이다.

대중들과 만나는 현장 강연을 즐기는 그의 강연방식과 치유방법은 거칠다. "그래 오냐, 오냐, 많이 아프지"라는 위로가 없다. 그는 절대 넘어진 사람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 오히려 일어사라고 발길질하는 쪽이다. 일으켜 세우면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멘토를 찾는 사람들을 보면 혀를 찬다.

그는 타인의 상처를 어루만지기보다 손가락을 넣어 쑤신다. 상처가 아물지 않았음에도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다. 언젠가는 곪아 터질 상처에 메스를 대고름을 짜내는 외과의사를 자처한다. 강연에서 그는 청중들이 비참한 바닥을 볼 때까지 몰아붙인다. 이른바 충격요법으로, 불쾌함과 거부감, 좌절감 등을 주입한다. 궁극점은 사람들을 돌아보도록 '흔들어 놓는 것'이다.

흡인력 있는 대중강연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자신의 모습은 글 쓰는 강신주에 가깝다"고 말했다. 글 재주는 그의 유년시절의 변곡점이 됐다. 집과 학교에서 외톨이였던 그가 난생처음 '인정'을 받았던 것이다. 글 때문에 학교에서 상도 받고 칭찬도 받았다. 그 때부터 자신을 멀리했던 친구들과의 눈길이 달라졌다. 항상 같은 옷에 양쪽

‘...다 상담’ 등 잇단 화제작
인문정신으로 고통 치유

“5·18 왜곡 피해 극복하려면
광주가 남부럽지 않게 살면 된다”

소매가 콧물로 젖어 반질반질하던 그와 누구도 찝궁을 하려하지 않던 때다.

그는 "누군가 어린시절 한번은 인정받게 중요하다. 선생님의 칭찬 한 번에 인생이 바뀐다"고 말했다. 그는 "체육선생님께 칭찬 받았다면 지금 좁 운동선수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문학 열풍을 받으면서도 "진짜 인문학 붐은 아니다"라고 했다. 여전히 서점가에서 인문학 서적은 천방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인문학의 붐은 서적을 스스로 찾는 사람이 늘어 북적이는 것입니다. 베스트셀러 좇아 읽지 않고 책장을 넘겨보고 읽을 책을 고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말이죠. 책의 세계로 사람들이 몰호르듯이 흘러 들어가는 게 진정한 인문학 열풍이죠."

철학자 강신주씨는 많은 질문을 받는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가?"는 단골 질문이다. 답은 '연애론'이다. 이 연애론은 그가 사람들에게 즐겨 추천하는 방식이다. 독서도, 클래식 음악도, 영화도, 다 통한다고 한다.

"연애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리고 하찮아요. 여성 10명 정도 사귀어 보면 왜 여자애가 안보입니까. 일단 길거리에서 여성에게 반한 것 처럼, 마음에 드는 철학자, 책이 있으면 읽으세요. 단, 책 한 권을 '아작'을 내겠다는 각오로 읽어야 합니다. 다작의 작가여도 쓴 사람은 결국 한 명이잖아요. 한 나무에 잎과 줄기가 많아도 뿌리는 하나예요. 책을 읽는 것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강신주에게 고전은 그의 표현 대로라면

뒤란에 있는 커다란 향아리 같은 것이다. 살아가면서 채워나가기야 할 어떤 것 말이다. 베스트셀러는 종지에 가깝다. 예컨대 고전은 내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읽는 과정에 느끼게 해주는 책으로 요약된다.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10대에 읽으면 사랑하면 죽을 수도 있구나 생각한다. 20대는 자살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든다. 50대에 읽으면 사랑의 열정이 시들어감을 느끼게 된다"는 식의 설명이다. 그가 추천하는 고전은 마르쿠스의 '자본론',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임제의 '임제어록' 등이다. 그는 "아직 우리가 마르쿠스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자본을 빼지리개 느끼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며 안타까워 했다.

철저하게 자유의지를 숭배하는 철학자 강신주는 조만간 일을 벌일 태세다. 극단적으로 "모든 종교는 암이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글쓰기다. 종교의 신을 믿는 구조에는 거부장적인 아버지가, 독재자가 들어설 여지가 있다는 게 집필 이유다.

86학번인 강신주는 최후탄과 물고문에 익숙한 사람이다. 연세대 공대출신으로 석·박사를 철학으로 한 그는 5·18 광주항쟁 등 80년이라는 시대상황도 있다. 그는 "광주가 아픔을 겪었지만 그 아픔을 역사로 만들 정도로 강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두 가지 부담을 안게됩니다. 피해자이면서 그 피해를 극복해야 할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광주가 남부럽지 않게 잘사는 도시, 강한 도시가 되면 상처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겁니다. 특히 80년을 애곡하는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일베'에서 광주항쟁만 건드리면 광주를 가지고 놀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공격합니다. '일베' 초등학교생들이 건드려도 아파하는 광주가 되어서 안됩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아름답다, 화가들의 20년 동행

한국화 동질성전 창립 멤버들 수하갤러리서 '삼인홍'전

조선대 김대원 교수는 지난 1991년 영남대 정치학 교수(대구). 정명희 작가(대전)와 그림 '한국화 동질성전'을 결성했다. 지역적 특색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도 중앙 문화 중심의 정체성에서 탈피, 한국화의 지역적인 동질성을 조명하기 위해서였다.



정치환 작 '벌레소리'

창립 멤버 세명이 다시 모여 '삼인홍(삼인홍)'전을 연다. 특히 이번 전시는 최근 건강이 악화된 정치환 교수를 위해 마련돼 그 의미가 깊다. 9일까지 수하갤러리.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아름다운 동행을 해온 작가들은 이번 전시에서 안숙미에 접어든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 3명에서 출발한 '한국화의 동질성전'은 이후 제주, 강릉, 부산, 전주, 청주 등에서 한국화가들이 참여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전국적으로 회원이 140여 명에 이른다. 문의 062-226-8484.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무등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참가자 모집

광주시립무등도서관은 오는 26일부터 '차(茶)와 함께 떠나는 생태 인문학 여행'을 주제로 열리는 '길위의 인문학' 참가자를 모집한다.

길위의 인문학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최하는 '2014년 길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매회 강연과 탐방으로 3차례 진행된다.

첫 프로그램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도서관 1층 회의실에서 '도양의 원 차, 세상을 바꾸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역사학자 조수진씨의 강연과 27일 하동 매암차박물관으로 떠나는 탐방으로 꾸며진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7월31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아파트 옆 작은 논으로 떠나는 도시 생태 여행'을 주제로 동화작가 김남중씨가 진행하는 강연과 8월1일 광주시 북구 한새봉 두레마을로 떠나는 탐방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프로그램은 10월17일 작가 김연곤씨의 '조선의 그릇 분청사' 강연과 10월18일 부안청자박물관 견학이다.

매회 4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시립무등도서관으로 문의(062-613-7752)하면 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국립나주박물관 '영화 음악 속 클래식'

7일 박물관 이벤트홀

국립나주박물관(관장 박종환)은 7일 오후 2시 박물관 이벤트홀에서 '영화 음악 속 클래식 이야기' 공연을 진행한다.

이번 공연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 연주자로 구성된 클래식공연팀 '하늬바람'이 초대됐다.

국내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실내악단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 하늬바람은 영화 주제음악인 '타파니에서 아침을', '냉정과 열정 사이', '미션 임파서블' 등을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연주로 선보인다.

입장료는 무료로, 오후 2시부터 선착순이다.

한편 국립나주박물관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행사에 참가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공연 현장에서 나주 박물관 캠프프로그램 특별영행사 참가신청을 받는다.

캠프프로그램 참가자는 오는 21일 1박2일 동안 박물관 후원에 마련된 캠프장에서 캠프를 할 수 있다. 또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박물관 전시 관람, 반납고분군 탐방, 자미산성 산책 등 프로그램에도 참여가 가능하다. 문의 061-330-7804.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h3>신축원룸매매 (용봉)</h3> <p>용봉지구 미래로APT 입구코너 옆 (전대상대5분, 군산아구찜앞, 르까프매장뒤)</p> <p>신축 4층 (1층 상가2칸, 4층 고급주택)</p> <p>룸 21개 월수익 880만 (1년수익 1억500만)</p> <p>E/V, 전면대리석, 벽돌시공, 정남향, 준공완료, 4층 주차하면서 월수익 수익성보장</p> <p>매가 10억5천 (용3억 보2억 실투자 5억5천)</p> <p>수익률 12%</p> <p>(주)대신 010-6670-9800 / 062)952-5584</p>	<h3>전대원룸매매(전대1분)</h3> <p>신축원룸 (전대정문1분, 전대후문1분)</p> <p>신축 4층(1층점포, 4층고급주택) 룸12개 월수익 500만(1년 6천만) 매가 6억5천보3천 용1억2천</p> <p>신축원룸 (전대정문1분)</p> <p>신축 4층 준공완료, E/V원비 룸18개 월수익 750만(4층 주택) 매가12억보5천 용2억6천</p> <p>신축원룸 (전대정문1분)</p> <p>룸18개 1층 상가2칸 월수익 680만 매가8억보4천 용1억</p> <p>용봉동 전대예술대학문</p> <p>룸11개 월수익 400만 매가4억</p> <p>나주 이창동 원룸</p> <p>룸18개 월수익 550만 매가 3억8천보3천 용1억2천</p>	<h3>상가임대</h3> <p>수원지구 상가3층 25평 (모아아트 상가앞, 신한은행 뒷) 보1천 월50만 E/V원비</p> <p>수원지구 상가1층 18평(대방5차 후문) 보2천 월120만</p> <p>전대사거리 1층점포 50평 보2천 월150만 6차선 도로인접</p> <p>북구 우산동 1층 80평 보2천 월120만</p> <p>토지매매(나주 산포면)</p> <p>나주산포면 등수리 생산녹지(투자적합) 920평 매가3억(용1억5천)</p> <p>교환전문(상가, 토지)</p> <p>원룸, 상가, APT, 토지 (1억~100억까지 교환합니다)</p> <p>경매투자전문</p> <p>경매투자해서 재산증식 하실분 (5천만~50억까지 물건) (APT, 상가, 토지, 공장, 원룸 등)</p> <p>경매 같이 하실분 연락주세요, 062)521-1060</p>	<h3>신축원룸임대</h3> <p>용봉동 용봉지구 미래로APT 코너 옆, 군산아구찜 앞 신축 4층 (엘리베이터 완비)</p> <p>플옵션 32인치TV, 세, 냉, 예, 유선, 불박이, 신발장, 전체 무료</p> <p>원룸 보200만 월30만 투룸 보300만 월42만</p> <p>*입주자에 한하여 시은품 증정</p> <p>명품 미래도빌 062)527-7600</p>	<h3>상가매매 (수익성, 노후보장)</h3> <p>수원지구 신한은행뒷 모아아트APT 5,000세대 밀집지역</p> <p>4층건물 중 3층 85평 월수익 200만(1년 2400만) 매가3억5천(보3천 용2억5천) 실투자 7000만 수익률 13%</p> <p>부영APT 7,000세대 앞 대상오션스파</p> <p>8층건물 중 2층 62평(보1천 월80만) 매가7억7천 (용9000만 실투자7000만)</p> <p>전대사거리에서 경신여고쪽</p> <p>주택상가(1층상가, 2층주택) 매가4억2천(1층공실, 2층주거함) (전시관, 세차장, 공업사흥보 적합)</p> <p>6층상가건물(목욕탕)</p> <p>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코너 월수익 600만 매가 8억5천보2억 용4억5천 직접운영하면서 월세수의 발생</p> <p>오피스텔 매매 (원룸형, 투룸형)</p> <p>쌍촌동 윤천역 1번출구 2분</p> <p>울수리, 전자제품신규교체</p> <p>①원룸형(10평) 매가3천4백 보200 월27만 용1000만 실투자2300만</p> <p>②원룸형(12평) 매가3천5백 보200 월30만 용1000만실투자2300만</p> <p>★2개매입시 총매가6천3백 월수익 57만(1년 680만)</p> <p>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p> <p>47평 매가 1억5천 → 월인가 1억2천 보증금 1000 월70만(용 7천만원) 사무실 인테리어 완비</p> <p>상무지구 오피스텔 3층</p> <p>30평 매가 1억6천 → 월인가 1억4천 현대아파트 앞, 보증금 1000 월70만 (사무실, 학원, 연구실, 투자적합)</p> <p>신한 010-6832-9700 / 062)952-5584</p>
--	--	---	--	---